

[아주경제] 한국뉴욕주립대,칭화대-포스텍-연세대와

글로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성료

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=한국뉴욕주립대학교(총장 김춘호)가 지난 20 일 칭화대,포스텍,연세대와 함께 글로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 일 밝혔다.

일주일 간 진행된 글로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세계 IT 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ICT 명품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.

각 학교의 우수한 인재들 약 30 명이 참가, 학생들은 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5 개팀으로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.

특히 중국의 한국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'E-美 (E-Mei)'의 효과적인 전자상거래(E-commerce) 홍보 전략 구축을 목표로 최근 활발한 O2O(Online to Offline) 전략을 함께 수립했다.

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, 칭화대,포스텍,연세대 학생들은 기술경영학,화학공학,경영학,경제학,컴퓨터과학 등 각각 다른 전공의 경험을 토대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협력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학교 및 전공 간 경계를 넘어 긴밀히 교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.



이번 프로젝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은 E-Mei 고객의 위치정보를 이용,오프라인 매장의 위치를 추천하는 앱을 디자인했고 중국 내 SNS 인 위챗과웨이보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전략을 발표해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.본 수상팀에게는 베이징에 위치한 E-Mei 본사에서 인턴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.

한국뉴욕주립대학교 김종수 부총장은 “올해는 연세대까지 참여해 4 개 대학이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를 더 풍성하게 진행했다” 며 “다른 문화와 지식,경험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하게 쓰여 지길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작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담당해 온 양필승 교수(건국대 중국기업연구소 명예소장 겸 칭화대 초빙교수)는 “학생들이 5 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 낸 아이디어와 결과물이 놀랍다” 며 “산학연계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되어학생들과 기업 모두에게 좋은 자산이 되길 바란다” 라고 밝혔다.

2012 년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한국정부가 국가사업의 하나로 유치한 학부와 석박사를 모두 갖춘 국내 최초의 미국대학교 이다.

현재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교의 커리큘럼,교수진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 시 스토니브룩대학교의

학위를받게된다.기술경영학과,컴퓨터과학과,기계공학과,응용수학통계학과,경

영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,

올해 가을학기에는 세계적인 패션명문스쿨인 ‘뉴욕패션기술대학(FIT)’의
개교를 준비하고 있다.

출처: <http://www.ajunews.com/view/20170124101358720>